| 현불 논단 |

금빛 장엄 부처님만 보는가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부처님의 호칭 중 '구세대비존'은
번뇌 벗게 할 '자비의 스승' 의미

깨달음, 중생 · 세상구제 전제하지만
한국불교는 깨달음에 매몰된 상황
왜 부처님이 돼야 하는지를 망각해

법당 안 금빛 장엄 부처님 보다가
정작 이웃의 아픔 놓치지 않았을까
새해, 중생의 삶 속에서 치열해지자

구세대비자(救世大悲者) 혹은 구세대비존(救世大悲尊)이란 부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이다. 부처님에게는 많은 호칭이 있지만, 대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연기(緣起)의 이법(理法)을 깨닫고 실천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는 세상의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자비의 스승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호칭들이다.

호칭 면에서 보면, 최근의 한국불교는 대체로 전자의 방향, 곧 깨달음에 초점을 둔 불교의 성격이 훨씬 더 강렬했다고 생각한다. 깨달음에 대한 지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 일변도로 강조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는다. 깨달음은 중생구제, 세상구제의 전제이지만, 깨달음만 성취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저 헛된 소망에 그칠 뿐이다.

유마거사가 물었다. "무엇이 여래를 낳게 하는 씨앗(種)입니까?"

문수보살이 답했다. "이 몸이 여래의 씨앗이며, 무명과 생존하고픈 욕망이 씨앗이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씨앗이며, 네 가지 전도(顚倒)와 다섯 가지 번뇌가 씨앗이 되며, 6입(六入)이 씨앗이 되며, 일곱 가지 식처(識處)가 씨앗이 되며, 여덟 가지 그릇된 가르침이 씨앗이 되며, 아홉 가지 고뇌가 씨앗이 되며, 십불선도(十不善道)가 모두 씨앗이며, 요점을 취해서 말한다면 62견(見)이나 모든 번뇌가 모두 부처의 씨앗입니다."

문수보살의 답변 요지는 명료하다. 중생이 받는 모든 고통의 씨앗 때문에 부처가 있다! 중생이 받는 고통의 씨앗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 바꾸어 말하면, 부처는 중생 때문에 세상에 출현한다는 의미이다.

깨달음도 좋긴 하지만, 왜 깨달음이며, 왜 깨달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한국불교에는 깨달음 지상주의가 횡행한다. 그 깨달음 지상주의의 어디에도 '왜 깨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으며, 그저 '깨닫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깨달음 만능주의가 대세를 이룬다.

왜 출가수행자가 되고, 왜 불교를 공부하는 자가 되며, 왜 불교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었는지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자(佛子)라면,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 되고자 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혹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혹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부처 되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허공에 씨앗을 뿌려 밭을 간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민생(民生)을 걱정한다는 수많은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민생이 정치를 낳는 것인지, 정치가 민생을 낳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수행에 몰두하는 많은 스님들께도 여쭙고 싶다. 지친 중생을 버무려 안고 돌보는 것인 수행인지, 깨달음만 추구하는 것이 수행인지.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과 필자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다. 금빛으로 장엄한 부처님만 보느라, 부처님이 결코 놓지 않았던 중생의 아픔은 정작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경자년 새해에는, 깨달음은 멀리 제쳐 두고, 너도 나도 다함께 중생의 괴로움 속에 치열해지는 나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부처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社 說

남북교류 신호탄, 불교 역할 기대

북미대화가 단절된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낙관적으로 바라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최근 한국불교계와 북한불교계가 주고받은 새해 서신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분명 북한은 외부와의 대화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지난 1일 조계종과 천태종에 각각 새해를 축하하는 서신을 보냈다. 조불련은 서신에서 법우들의 법체건강과 불은 충만을 기원했다. 지난해와 2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 '용맹정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불교도들의 연대'라는 표현을 쓴 조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이 새롭게 꺼내든 대북교류 카드는 단연 눈에 띈다. 그동안 한국불교계가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북측의 답변을 오매불망 기다렸다면, 이번에는 북측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북한사찰 문화재를 교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조계종의 카드 '평양 법운암 칠성각 치성광여래도'는 조계종이 2018년 1월 일본 경매에서 환수한 북한사찰 문화재다. 어떤 연유로 칠성도가 일본까지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35년 여러 보살의 시주로 화승 예운당 상규 스님이 그린 걸작이다. 특히 현재까지 알려진 예운 스님의 마지막 작품인 '표충사 삼세불회도'보다 5년 뒤에 조성된 것으로 가치가 높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으로 북한불교계와 교류해온 조계종이 북한사찰 문화재를 활용해 단절된 남북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길 기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기도회를 봉행한다는 소식이다. 첫 기도회는 1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스님들은 격주 목요일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연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2월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제18,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보수 개신교계의 집요할 정도의 집단 협박과 항의에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서 법안을 철회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보수 개신교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쏙 빼버리고 대신 보수 개신교계 인사를 만났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제시한 질문에서도 유보 입장을 보였다.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는 저서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조차 차별적 질서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차별은 고착되고 구조의 일부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차별은 지워지거나 공정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기실 한국사회의 차별 감수성은 지난 10년간 높아질 만큼 높아졌다.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평등을 지향한다. 하지만, 정말 세상이 평등할 수 있을까. 아니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노예제 시대에 노예는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재산이었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던 시대에는 여성은 투표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었다. 시야를 확장해 차별을 발견하고 논쟁해야 진정한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평등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승낙해도 거절해도 방망이 50방

지금은 동안거 중후반에 접어들었다. 화두에 몰입하며 용맹정진하는 선방 스님들을 생각하고 있으니, 지난 하안거 때 나에게 큰 화두를 던져준 환자분이 떠오른다.

지난 여름이었다.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한 환자분 보호자가 나와 면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좋다고 승락하자 잠시 후 지하 2층 불교법당으로 키가 작은 60대 후반 여자 분이 들어왔다. 그리고 던진 첫 마디가 "저는 불교가 정말 싫습니다"였다.

"저희 남편이 천도재를 지내고 싶어 하는데 그걸 좀 물으러 왔습니다. 게다가 죽은 후에는 꼭 절에 있는 납골당에 모셔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댁이고 친정이고 모두 개신교 신자죠. 그래서 식구들은 펄펄 뛰고 절대 안 된다며 난리입니다." 여인은 법당 부처님을 이따끔씩 흘깃 쳐다보기를 반복하며 "저는 이제 불교도 싫고 기독교도 싫습니다"라고 울먹였다. 그리고 그간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남편은 신학대까지 나온 개신교 신자인데 7년 전 하던 사업이 기울자 갑자기 불교로 개종을 했단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되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자신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신심 견고한 불교도로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림 · 최주현

말을 들으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천도재를 하라 해도 50방이요, 하지 말라 해도 50방, 사찰서 운영하는 납골당에 모시라 해도 50방이요, 모시지 말라 해도 50방인 것이다.

호스피스병동을 찾아 환자를 직접 만났다. 그의 아내가 설명하자 환자는 승려인 나를 보고 반기는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환자는 이미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노트에 간신히 글자를 써서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정도였다. "천도재를 지내고 싶다 하셨다고요?"하고 큰 소리로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 "천도재 지내주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재차 물으니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사력을 다해 종이에 "사고난 사람"이라고 써보였다. 환자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졌다. 환자는 지쳤는지 한참 숨을 고르더니, 다시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썼다. 부모님에게 이승에서 마지막 효도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에 나는 "거사님 요즘 시기가 백중 천도 중인데요. 우리 법당에 위패 써서 백중 천도재 지내 드리면 어떨까요"하고 물으니 환자가 고개를 끄떡이며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사고난 사람 영가'와 '부모님'의 위패를 휴대폰에 사진으로 담아 보여주니 만족한 표정이다. 다행이었다. 한 방망이는 피한 것 같았다. 납골당 관련 나머지 한 방망이를 해결키 위해 다시 병실을 찾으니 환자는 이미 의식을 놓은 상태였다. 후일에 들으니 가족회의서 일반 사설 납골당에 모시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환자는 곧 임종했고 '사고난 사람 영가 위패'와 '부모님 위패' 옆에 나란히 모셔 백중 천도재를 맞이했다. 나는 과연 두 개의 방망이를 지혜롭게 잘 피하고 병원법당 포교의 과업을 무사히 잘 마친 것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